

<번역 자료>

<관용적 번역>의 서문 (Introduction to *The Idiomatic Translation*)

윌리엄 그래햄 맥도널드(William Graham MacDonald)*
임성욱 번역**

이 글에서, 본 번역자는 신약성서라는 최종적 성서적 계시의 숭고한 축적물을, 21세기의 교양 있는 독자들에게 적합한 번역 문체를 유지하면서도 고대 그리스어 사본에 철저히 입각하여 소개하고자 한다.¹⁾

1. 번역의 주요 기준

1) ‘관용적 번역’(The Idiomatic Translation)은, 다른 어떤 영어 번역본도 참고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어 본문을 기초로 한다. 본 번역자는 50년 동안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연구해 왔고, 오래된 <제임스왕역>(KJV)과 현대 번역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번역자는 기존 역본들의 표현이 가진 상대적인 장점들을 예단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 번역본과 비교하지 않도록 스스로 매우 엄격하게 노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본 번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후대의 많은 번역물들이 가

* William Graham MacDonald, “Introduction to *The Idiomatic Translation*”, *The Idiomatic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2006), 1-21.

** Vanderbilt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sunguk.lim@yonsei.ac.kr.

1) [역자주] 이 자료는 윌리엄 그래햄 맥도널드 박사의 개인역인 *The Idiomatic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MIT)의 서문으로써, 이하에서 ‘본 번역자’라는 표현은 이 자료의 본래 저자인 윌리엄 그래햄 맥도널드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다. 예문으로 드는 성경 구절들도 모두 MIT에서 인용한 것이다.

질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원문의 의미를 영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만을 추구했다. 여기서 제약이 의미하는 것은, 새롭게 번역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문장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과 동시에, 심지어 번역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통과 일치하게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관용적 번역’은 어휘 측면에서는 다른 영어 번역본들로부터 독립적이며, 주요 대상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그 자신이 주요한 사역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룹인, 교양 있고 교육받은 독자들(행 13:7; 18:24; 삼상 25:3)이다. 본 번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말씀”(골 3:16)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내용을, 영어 사용권에 있는 숙달된 독자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2) 대부분의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교양 수준이 조금 높은 독자들이 즐기며 읽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초반에 가장 유행했던 번역물은 중학교 7학년 읽기 수준이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쓰였지만, 히브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에베소서 등은 대학 또는 대학원 수준의 문체로 쓰여 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독서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적 ‘포그 인덱스(fog index)’를, 회회의 본질에 대하여 회중에게 강론한 바울 서신의 그리스어 원문, 그중에서도 처음으로 에베소 회중에게 전달된 원문에 적용한다면, 그 독서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매우 긴 문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1:3-14는 그리스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1:15-23; 2:1-7; 3:1-7, 14-19; 4:11-16도 이와 유사하다]. 더구나 그리스어 성경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는 데 사용한 영어 단어보다,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단어가 몇백 개는 더 많다. 영어(또는 독일어라고 논쟁할 여지는 있겠지만)는 어휘가 가장 많은 언어인데, 그중의 70%가 외래어(차용어)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신약성경 원문의 풍부한 어휘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된 영어 단어만을 사용하여 번역한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과 진지한 대학생들은, 지나친 현학이나 여러 개의 음절이 연속되는 것은 피하면서도 영문의 풍성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번역물을 즐겨 읽을 권리가 있다. 고대 원문들이 훌륭하게 잘 번역된다면, 번역된 성경 원문은 열정적인 독자가 읽고 있는 다른 책들의 영어 수준에 상응할 만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번역의 경우, 단어가 번역의 다른 기준들을 만족시킨다면 빈도수가 적거나 많거나 간에, 영어라는 언어에 가장 적합한 단어들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서, ‘휘도르(*hýdōr*)’를 물로 번역할 때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요한복음 19:34의 ‘휘도르’를 잘 표현하자면 ‘체액’(*lymph*)이 적합할 것이다. ‘싸나토포비아’(*thanatophobia*, 히 2:15), ‘네크로비오시스’(*necrobiosis*, 롬 4:19)처럼 고급 영어 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 단어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다.

3) 독자들에게 필요한 교양 수준은 본 번역의 제목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제목의 ‘관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독자라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수준의 원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용적 번역은, 단순한 문체로 쓰인 히브리적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서신들로부터, 고급 헬레니즘 문체로 쓰인 히브리서 서문(기독교적 권고)과 누가복음의 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체를 유지하면서 번역하게 된다.

4) 본 번역은 영어라는 언어 자체의 내부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관용구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관용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없애 버리는 정반대의 접근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로버트 브래처(*Robert Bratcher*)는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에서 관용구를 잘못 해석해서 심한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용구 없이 성경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한 적이 있다. 또 이후에 영어 독자를 위해서,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관용구를 모두 없애고 텍스트를 수정하여 <기쁜소식번역>(*The Good News Bible*) [일명, <오늘의영어역>(*Today's English Version*)]으로 번역을 다듬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는 관용구들을 없앤 후에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맛과 의미가 희석되고 밋밋해져서 텍스트의 재미가 없어진 것을 보충하고 보다 흥미롭게 독자들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본의 각 페이지에 라인 드로잉(선화)을 그려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어 자체의 생동감 있는 표현들을 없앤 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GNB [TEV]를 읽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언어적 색채와 리듬으로 구성된 관용어구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개별적인 어휘 연구 수준으로는 미치지 못하지만, 관용구를 통해서는 전달될 수 있는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관용구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관용적 번역은 영어라는 언어를 특징짓는 특별한 언어 구성 체계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그러나 어떠한 관용구도 어떤 특정한 본문에 억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번역에서 관용

구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관용구는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에 부수적인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관용구는 그 메시지를 명확히 하거나, 다른 언어가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도와준다. 관용구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항상, 주의 깊게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명확한 개념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5) 관용적 번역은 분명히 하나의 번역이다. 타당한 해석학적 원칙들에 기초해서, 수십만 번 결정을 저울질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어(요 2:4)에 남아 있는 히브리어적인 관용구(삼하 16:10; 19:22[23]; 왕하 3:13)들이 있다. 또한 해석되어야 하는 그리스어 관용구도 있다: 사도행전 5:1 - 문자 그대로, “아나니아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a man ... Ananias in the name/for a name). 또 영문으로는 관용구 ‘없이’ 가장 잘 표현되는 히브리어식 그리스어 관용구와 순수 그리스어 관용구들도 있는데,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관용구를 만들게 되면, 영문으로는 왜곡된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보충하자면, 영어로 가장 잘 표현되는 구, 동사 또는 절이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Blessed is anyone who is not *put out with me*”(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 11:6). 관용적 번역에서 관용구의 존재는 전적으로 영어라는 언어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관용구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어 관용구인 “speaking into air”(허공에 말하기)의 경우에, 그대로 영어로 직역한다고 해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soliloquize* (독백하다, 고전 14:9)라는 단어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전에 성서 원문에 나와 있는 관용구들을 어떻게 번역하였는가를 통해서 번역자의 주석 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다. 관용구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번역의 명료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문자적인’ 번역에 대한 과도한 논쟁은, 번역 과제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전제로 인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어형 변화가 거의 없는 영어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언어의 순서에 많이 의존한다. 그리고 그 어순으로 인해서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영어가 아주 섬세하게 관용적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것을 다른 단어로 새롭게 표현하려는 시도를 염두에 두고, 이미 완성된 기존의 영문 번역을 다시 의역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번역이 문자적인가 또는 의역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번역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미숙한 것이다. 직역 번역의 명료함

과 글의 문체는 모두 원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의역’이라는 것이 ‘개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후자를 사용해야 한다. 더구나 개념을 무시하고 개별적 단어들만 연속적으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심하게 분산되고 매우 정돈되지 않은 불규칙적인 문법소론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영어 독자들은 번역된 글을 읽으며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관용적 번역은 주어진 본문을 잘 번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자유자재로 많이 혹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솔한 사람들이 번역을 유전자 증식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실수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확대하여 번역을 하게 되면, 독자가 본문을 직접 읽을 때까지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모든 단어의 이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 즉 문맥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기도 하고, 관용구를 배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용구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같은 어원 내의 동일한 관용구가 있는지도 거의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6)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번역의 언어는 어디까지나 현대적이어야 한다. 풀어 말하자면, 번역의 언어는, 검증되지 않은 혁신적인 표현을 실수로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혹은 성경의 규범을 따르지 않아 그 결과 문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유행을 따른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물은, 전통의 광범위한 영향 아래에서 적어도 30-50년 전 이전에 사용되었던, 번역하기에 안전한 영어를 사용한다. 본 번역이 아무리 열심히 현재 유행하는 최고의 사고 형태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언어의 참신성보다는 어휘의 정확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정제된 언어의 최고봉에 있는 지적인 연사들과 작가들이 현재 사용하는 가장 예리한 언어가, 이상적인 언어로 여겨져 왔다. 이런 점에서, *The Encarta World English Dictionary* (NY: St. Marten's Press, 1999)를 자주 참고했었다. 이 사전은 “관용구는 사전에서 실제 수보다 더 적게 나타난다”(p. xviii)고 언급하면서도, 빈틈없이 많은 관용구를 포함하고 있다. 20세기 미국의 가장 뛰어난 웅변가인, 상원의원 에버레트 M. 더크슨(Everett M. Dirksen)은 자신의 어휘 사용의 비밀 중 하나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단순히 그것이 의미하는 바뿐만 아니라, 내 입에 얼마나 맞는가 하는 것 때문에 선택한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주어진 맥락 가운데 어휘의 의미에 대해 얼마만큼 민감한지가 또한 본 번역의 주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7) 관용적 번역은, 덧없이 사라질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고수하기 위해 고대의 어떤 원문에 여성학적 또는 동성애적 관점을 덧입히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대의 어떤 원문이라도 분홍색이나 보라색으로 물들이지 않고, 신약성서 자체의 단일한 사회적 성에 대한 관점, 즉 포괄적인 남성성을 충실히 유지한다. 창세기 1:26, 27을 기초로 하여, ‘남자’(man)는 어떤 본문에서는 인류에 대한 제유법(synecdoche)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2. 번역에 있어서 관용구의 주요 역할

그리스어 형용사인 ‘이디오스’(idios, 자기 자신의)라는 단어에서 기원한, 관용구(idiom)라는 영어 단어는, 하나의 언어에서 발전해서 일상적으로 그 언어의 고유한 고정된 형태가 된 표현을 가리킨다. 즉 형태의 의미가 바로 분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연사들이나 작가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독자들이 익숙해져서 그 형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한 형태의 의미는, 단순히 구성된 어휘소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관용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만, 그 언어권 바깥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유추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 형태의 의미는 단순한 단어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이다. 관용구의 의미가 문화적으로 조건화되었다는 사실은,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권으로 바뀔 때 어휘를 단어 대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통념에 배치된다. 즉 컴퓨터가 어휘를 단어 대 단어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할지도 모르나, 이렇게 해도 관용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하자면, 한 언어의 각 관용구는 단어들(또는 드물게는 단 하나의 단어)의 특별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는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들의 총합에서가 아니라, 문맥 안에서 표현의 고정된 단어 순서를 통해 획득된 함축된 의미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각 언어에는 무수한 관용구가 있으며, 그 각각의 관용구들은 그 자체로 독특하다. ‘성경 본문의 관용적 요소들을 대상 언어(target language)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다.’

번역 분야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미 인정하듯이, 심지어 같은 어원을 가진 언어에서조차,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와 ‘정확히 상응하는’ 단어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계속 사용을 함으로써 단어의 역사는 분화

하며, 때로는 주어진 단어의 뜻의 여러 가지 개체를 만들게 됨으로써 발전한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house”(집), “household”(집안), 그리고 “home”(가정) 세 단어는, 그리스어에서는 오이코스(oikos)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영어 문맥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관용적인 것이다(house - 행 9:11; household - 행 7:42; home - 눅 10:5). 여기서 설명된 것처럼, 이런 가장 섬세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home과 같이 인식된 함축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비록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형성하는 구문론적 문맥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하나의 관용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대명사를 변형하거나, 동사를 시제(tense)나 법(mood), 태(voice), 인칭(person), 그리고 수(number)에 따라 활용하는 고대와 현대 언어와는 대조적으로, 영어는 구조적으로 어미의 변화(즉, 어형 변화)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찍이 구문적인 어휘 순서에 의존했다. 아무리 많은 관용구들이 보통의 독자나 청중들에게 불명확하다 할지라도, 영어 문법소론의 구조적 특성이 수천 개의 관용구가 생성되고 증가되는 조건들을 만든 것이다. 영어는 변형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우기가 더 쉽지만, 복잡한 관용구들 때문에 영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어를 완전히 숙지하는 것은 어렵다.

영어는 또한 동사와 전치사를 쉽게 묶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관용구가 발전된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영어 관용구 중에 하나가 “put up with”(참다, 엡 4:2)이다.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전치사를 동사와 수직적(up)이고 수평적(with)인 표시를 혼합하는 방식이어서 문자적으로는 이상하지만, 이 관용구는 “tolerate with restraint”(자제하며 참다) 또는 “endure the duress of ... patiently”(끝까지 압박을 견뎌 내다)와 같이 밋밋한 문자적 표현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 두 개의 전치사 중에 “with”를 “to”로 바꾸게 되면, (즉 put up to) 다른 사람을 ‘사기로 선동하거나 지시하다 또는 저열한 속임수’(요 18:34; 행 6:11)를 의미하는 전혀 다른 관용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put up” 다음의 전치사를 없애면, 이 동사-전치사 조합은 또 전혀 다른 또 다른 관용구, 즉 ‘일시적으로 집과 음식을 제공하는 환대를 베푼다’(행 28:7)라는 뜻이 된다. 비슷한 형태로, “put out”은 ‘소멸시키다’(요 1:5)라는 뜻이고, 두 번째 전치사인 “with”를 더하면 동사의 수동태로(즉 “to be put out with someone”) 다른 사람에 대해 ‘좌절감이나 또는 아마도 화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

성서 시대에는 명확했던, 연설에서의 비유 사용은 오늘날에는 때때로 직설적인 언어를 통해 더 확실하게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비유가 모호한 해석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일시적일 수 있지만,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비유 중 하나가 그리스어 마태복음 24:32와 33의 연속된 절에서 나타난다: “near the door”(그 문 가까이); “near upon [the] doors”([그] 문들 앞 가까이). 복수인 doors (문들)는 두 번째 예에서 비유를 강화시켜 준다. “여름이 임박하였다”(summer is imminent, 마 24:32),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임박하였다”(all these events are imminent, 마 24:33)와 같은 격언들의 경우,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로 구체화하지 않고 계절과 일련의 사건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에서는 상징적이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비유를 가장 잘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에 원문의 관용적, 비유적 언어가 영어 번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현대적으로 예스럽게 말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언어 감각이 부족한 독자들이나 알레고리를 좋아하는 독자들은 “door/doors”(문/문들)라는 단어들을 의도하지 않게 신비롭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로 인해, 이 단어들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거나 그 단어들의 숨은 의미를 신비스러운 직관력을 통해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외국어의 비유적 관용구를 직설적으로 번역함으로써 가장 잘 보존되는 본문의 단순하고도 명확한 현재적인(temporal) 의미를 놓치게 된다.

신약 그리스어는 변형이 매우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은 (어떤 접속 조사를 동반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강조함’으로써 구 또는 문장의 시작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영어의 경우에는, 관습적인 단어 순서를 바꾸게 되면 구나 문장의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법적인 수수께끼가 되어 버리지만, 그리스어는 단어 순서에 상관없이 어휘 변형을 하여서 구 (clause)가 문법적인 수수께끼가 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보통 영어 문장은 알려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동한다. 최상의 단계에서 영어는, 소위 마침 문장(periodic sentence) 안에서 단어를 점진적으로 구성하여, ‘맨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게 된다. 원어와 대상 언어의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어떤 본문에서는 모순적인 문법소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점들을 해소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관용구의 문제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관용적 요소는 늘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탁월한 번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휘나 구만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

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언어의 고유한’, 그리고 구문론적으로 예상되는 단어 순서로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어 구문에 내포되어 있는 강조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래 고린도전서 14:20의 본문을 보면, 인사말 다음에, 부정어, 동사의 목적어 또는 보어가 따라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연속하는 두 구절을 참조해 보면, 모든 동사들이 맨 끝에 나온다. 관용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Brothers, do not continue to be childish in your reasoning.

Rather, let your immaturity be in evil. Grow up into mature thinking.

형제 여러분, 사리 분별을 할 때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악에 대해서는 미성숙하도록 하십시오. 성숙하게 생각하는 데 까지 자라나십시오. (고전 14:20)

로마서 1:14에서 다른 좋은 예를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하강하는 행의 순서를 나타낸다: 1. 음역(transliteration), 2. 행간번역(interlinear), 3. 관용적(idiomatic) 본문:

1. sophois te kai anoetois opheiletes eimi

2. to wise ones and also to ignorant ones debtor I am
지혜 있는 자에게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 나는 이다

3. “I am under obligation to those who have developed their minds and also to the uneducated.”

“나는 자신들의 마음을 계발한 사람과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원문과 대상 본문 모두의 관용구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각 경우에 번역자는 본문이 (1) 단순/직접/문자적인지, (2) 비유적인지 (3) 관용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원문이 비유적이라면, 번역은 보통 그 원문이 가지는 색깔로 언어의 비유를 유지할 것이다. 바울이 그의 사도적 중요성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쌍으로 된 은유, 곧 “더러운 오수”(dirty dishwater)와 “음식물 찌꺼기”(plate-scrapings, 고전 4:13)를 사용하였다. 또는 세례 요한이 사용한 제유법을 그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자. “내 뒤에 오

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My Successor, of whom I am unworthy to untie the thong of his sandal, 요 1:27). 특정한 ‘부분’으로 “그분의 신발끈을 풀다”라는 말은 그의 시종 즉 집사로서의 역할이라는 ‘전체’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언어의 비유와 신약성경의 관용구를 비교할 때 주요하게 비슷한 점은, 두 가지 언어 형태 모두 흑백의 보통 문장에 색깔을 입히고,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내포된 의미와 암시된 이미지가 풍성한 정확한 관용구가 비유적 언어로 가장 잘 번역될 수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고린도전서 15:25의 비유 “자기 발 아래 … 두는 것”(to put … under his feet)은, 영어에서 대략 이해될 수 있지만, 관용적으로 더 잘 번역될 수 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의 절대 항복을 받아낼 그때까지”(until such time as he achieves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all his enemies). 또 다른 예 중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발들(feet)”과 관련이 있다. 사도행전 4:35에서 사용되고 있는 본문의 비유에서, 믿는 자들은 자신의 땅을 관 수입을 ‘사도들의 발들 아래에’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언어의 비유는 영어 관용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they placed their funds at the apostles’ disposal** (그들은 그들의 돈을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대상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가, 즉 직설적인 본문을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가, 혹은 보기에는 직설적이지만 보다 어려운 관용적 본문을 어떻게 다루어 번역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관련될 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대가’(quid pro quo)의 법칙들을 적용할 수가 없다. 즉 직설적인 그리스어는 항상 직설적인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관용적 그리스어(또는 그것의 이면에 있는 히브리어 관용구들)는 항상 관용적 영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진부하고 때로는 잘못된 번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과도 같다. 이 잘못된 방법의 분명한 예는, 아론의 축복에서, 수십 세기의 전통으로 인해 현재 굳어진 히브리어 관용구를 직설적으로, 따라서 세련되지 못하게 번역한 것에서 드러난다. “주가 그 얼굴을 네게 비취게 하사”(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민 6:25) 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완전한 번역을 ‘인용’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쓰고 있다. 여기서 히브리어 관용구는 (존재하지 않는) 영어 관용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비관용적인 산문을 사용하여 고대의 관용구를 지각 있게 번역함으로써, “야훼께서 너를 향해 웃으시고”(May Yahveh smile at you)와 같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영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

제 직설적인 번역을 통해서 이해를 보다 잘 할 수 있게 되는 관용구의 예를 신약성서에서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문자적 그리스어 관용구: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Why did you put in your heart this deed?)”(행 5:4)

직설적 영어: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였느냐?

(What motivated you to do this?)”(행 5:4)

다음과 같은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성서의 모든 본문을 원어로 주석,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 영적으로 친밀하게 느끼게 되는 경건한 마음가짐(건전한 원칙)을 따름으로써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리스어 본문이 평상적이든 관용적이든 간에,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번역자는, 표현이 관용적이든 관용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영어라는 언어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다. 이것은 항상 원래의 메시지에 일치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표현을 선택하고 명확성과 원래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어법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동화되도록 하는 것과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성 음운론에 대해서조차 예민해지도록 하는 것 등, 그리스어 본문을 치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합한 영어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잡한 것을 한 차원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관용구가 때때로 신약성서에 유입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번역을 잘하여 정상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층위의 언어, 즉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를 거쳐야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12하반은 시편 34:16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야훼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다”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찌푸리시다”로 가장 잘 표현된다. 전통적인 영어 표현 중에서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들 중 몇몇은, 이런 방식으로 4세기 전 또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어 관용구를 거쳐서 히브리어 관용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오해 중의 하나는 ‘화자의 위협받은 자유와 언급된 사람의 권위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관계에 대한 관용구인데, 전자는 후자가 가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어휘의 단순성으로 인해서 히브리어 관용구가 애매한 점이 있다. 곧 “나와 네가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냐?”(What to me and to you?)와 같이 여섯 개의 단어들이 구조적으로는 의문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용적인 단어

들과 그 구문에 근거해서 볼 때, 내용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관용구는 모두 같은 관용구를 사용하는 각각의 아홉 개의 성경 구절(삼하 16:10; 19:22; 왕상 17:18; 마 5:7; 막 1:24; 5:7, 눅 4:34; 8:28; 요 2:4)에 있는 문맥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문맥은 이 구절에 대해서 유추적 의미를 제시하는 유사한 요소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의 첫 번째 기적을 보이기 바로 전에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관계에 대한 히브리적인 관용구를 사용하였다. 예수도 참석했던 혼례 잔치에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와중에 마리아가 예수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예수는 [문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What to me and you, lady?)(요 2:4). 하지만 만약에 위와 같이 번역된다면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셈어(Semitic)의 관용구를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여인이여,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십니까?(Lady, what right do you have to exercise authority over me?)” 마리아는 현명하게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정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그녀와는 독립된 그의 지위를 인식하였다.

때때로 영어 관용구는 성서적 관용구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0:24의 그리스어 본문은 문자적으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을 올리겠나이까?”(Until when do you lift up our soul?)이다. 이 이상한 질문은 알기 쉬운 영문 번역으로 해결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불안케 할 것인가?”(For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로 번역될 수 있다.

어떠한 히브리어 관용구 중에서 (전사 반복[anadiplosis]과 행두 반복[anaphora]에서 수사학적 효과를 제외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관용구들이 있는데, 영문으로는 이런 경우에 중복과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 현대적 문체 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반복 중에서 번역하기 아주 까다로운 가장 악명 높은 것이 서술적인 히브리 관용구인데, “대답하여 말하였다”(answered and said)(요 1:48, 50; 2:19; 3:3, 9, 10, 27; 4:10, 13, 17; 5:19) 또는 그 변형인 “말하면서 대답하였다”(answered saying)(요 1:26)이다. 고대 스토리텔링의 대화를 시연하기 위해 깊숙이 자리 잡은 형태인 본문의 흐름 상,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에서

이렇게 동사들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말했다”로 종종 대체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중복은 서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긴장감을 더 오래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표현될 대답에 대해서 청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대답하다 그리고 말하다’(answering and saying)라는 관용어는, (<제임스왕역>처럼)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화자의 전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문으로는 대답을 나타내는 하나의 동사만을 사용하여 가장 잘 표현된다: “그가 대답하였다”(he answered) 또는 “그가 답하였다”(he replied). <제임스왕역>(기원후 1611년)에서 나타나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문에서, 서술적 반복의 대조적 관용구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어떠한 서술에 있어서 원래 그리스어 본문은 단순히 “그것이 발생하였다”(It occurred) 즉, “그것이 일어났다”(It happened)라고 말하고 있다. 이야기 서문으로서, 하나의 동사가 <제임스왕역>에서 관용적으로 읽도록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다(It came to pass)” (눅 11:1)와 같이 번역된다. 4세기 이후에, 그와 같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의 서사적 관용구는 더 이상 표준 영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언어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게 된다. 반복의 다른 양식으로, 갈라디아서 2:5의 문자적 기술인 “우리가 항복하여 굴복하였다”(we yielded in submission)와 선호되는 간결한 관용구인 “우리가 굴복하였다”(we give in to)를 비교해 보자.

관용구가 사용될 때, 그 관용구들은 아주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관용구는, 우회적 표현처럼 에둘러 말함으로써 어떤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자 한다. 본 번역에 있어서는 관용구, 언어의 비유, 그리고 일상문에 대해서도 민감한 동시에 언어의 간결성을 유지하는, 에이드리엔 코흐(Adrienne Koch)의 원리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어라도 남겨 두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구절이나 구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상적이다.

3. 문체의 요소들

3.1. 투명성

하나님의 말씀을 영문으로 가장 잘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본 번역의 기본적인 계획이 구성되었다: “물론, 문체의 최고의 가치는, 단어들을 사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 이와 일치하는 수잔 덴저(Susan Denzer)의 의견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문체는 명료성과 이해의 시종이어야 한다. — 지지적이지만, 눈에 띄지 않아서 독자들이 그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¹⁾

3.2. 현대 문체에 일치하는 대문자 표기

합의된 기준에 따라서 대문자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관용적 번역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과는 대조된다.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1789년에 이미 노아 웹스터(Noah Webster)에게 쓴 편지에서 소위 명사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한 유행이, 약간 퇴색되기는 했지만, 특히 종교적인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역사적인 독립 선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문장 내에서 대문자 표기가 자주 나타날 때, 현대 독자들은 그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며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대문자를 사용한 색다른 문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피상적으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도그마틱한 공식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옛날 영어 전통에 따라 과도하게 대문자를 사용하는 번역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본 번역이 가진 차이점을 알아차리기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9는 아무리 의미가 좋다 할지라도 예스럽고 과장된 표현인 “the Gospel of His Son”이 아니라, “the gospel of his son”이라고 표기된다. 대문자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예스러움, 특이성, 그리고 기이함 등을 표현하는 것이고, 단어의 의미에 대한 접근성으로부터는 관심이 멀어지게 한다.

문장에서 대명사가 첫 번째 단어로 오게 되어 대문자를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에 대한 대명사는 대문자로 표기되지 **않았었다**. 요한복음 15:26-27의 관용적인 번역을 비교하자. 여기서 단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10개의 내부적 단어[명칭 4개와 대명사 6개]들은, 이 본문에 과도하게 대문자를 표기하여 넣지 않고 일상적인 산문체의 형식을 따른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리라.

1) R. O. Grover, ed., *U.S. News & World Report Stylebook for Writers and Editors*, 7th ed. (Washington: U.S. News & World Report, Inc., 1994), 45.

(When your companion arriv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he will authenticate me / You also will authenticate me because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예수를 부르는 명칭 중에서 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가 대문자로 인위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나타난다(예, 선구자 예수[forerunner Jesus] - 히 6:20).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미가 문자적이든 은유적이든, 명칭 자체에 분명히 표기된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 편집자가 첫 글자로 대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단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생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영향 이전에 대문자의 영향을 먼저 감지하게 된다. 대문자는 항상 그리스도(Christ,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칭에만 사용되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보통 이 명칭은 예수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의 인격적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단어로 오게 된다. 그래서 가장 자주 쓰이는 명칭인 ‘그리스도(Christ)’는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대문자를 사용하는 고유 명사처럼 기능한다. 또한 특징적인 명칭인 주(Lord)는 예수와 관련될 때 대문자로 쓰인다. 왜냐하면 주(Lord)는 예수를 부를 때 두 번째로 가장 자주 쓰이는 명칭으로서 정관사와 함께 삼인칭으로 예수가 언급될 때(눅 18:6; 요 6:23; 11:2; 고후 3:17), 직접 언급하는 형태로 사용될 때(마 16:22; 눅 5:8; 요 11:12), 그리고 그의 공식적인 명칭의 부분일 때(롬 1:7; 5:1, 11; 13:14; 14:14; 15:6, 30; 16:20; 고전 1:1, 2, 3, 7, 8, 10; 고후 13:14; 갈 1:3; 6:14; 엡 1:2, 3), 그리고 또한 모든 다른 구절에서 통일성을 위해서, 인격적인 함의를 가지며 사용되기 때문이다.

성서를 회중에서 읽어 주는 의무화된 사역을 실천(딤후 4:13)하다 보면, 번역에 있어서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신학적인 의미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성경을 읽어 주는 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신학적으로 옳은 것을 원하는 편집자가 본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체를 강화하는 등의 조작을 한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주인 언어들(host languages)의 작품 문체와 상관없이, 권위는 전적으로 어휘들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어휘들 그 자체는 모든 신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원리가 타당하다는 증거에 대한 확신은, 신약성서의 가장 오래된 고대 그리스어 사본에서 문자의 크기를 통일하는, 즉 오로지 대문자로 손수 쓴 ‘언설체(uncilas)’에

의해서 증명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가능한 영어 글자 쓰기 중 가장 초기에 편집된 사본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보였다.

ALLINCAPITALLETTERSWITHOUTBREAKSBETWEENWORDSEXCEPT
(단어들사이에띄어쓰기없이대문자로된모든것은이의를제기하는데)

띄어쓰기는 행의 끝자락 어디서라도 올 수 있고, 실제로 자주 오기도 하는데, 띄어쓰기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단어 내에서도 올 수도 있다.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가 인용될 때, 인용된 구약 본문에서 글자체를 똑같이 일치시킨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글자들은 영어에서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하는 것 같은 구분이 없이, 모두 하나의 글자 크기를 갖기 때문이다. 고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모든 글쓰기에서 오로지 하나의 알파벳, 손으로 쓴 하나의 문자 세트, 하나의 ‘문자체’, 즉 하나의 글자체만이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원문에서, 선택한 단어들의 처음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어진, 암시되어 있는, 혹은 의도된) 어떤 지침도 없다. 모든 대문자는 하향의 편집 결정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관용적 번역은, 마치 대문자 표기라고 하는 화물칸에서 교리라는 컨테이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산문체를 따름으로써, 성경적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성서적 진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전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서라는 원래의 화물 영수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과 그의 인간 아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아버지”(father) 그리고 “아들”(son)과 같은 비유적인 용어들은, “아버지 하나님”(Father God, 엡 5:20)과 같이 번역이 결합된 용어를 제외하고는 대문자로 표기된 적이 없다. 여기서 부여된 지위에서 아버지(Father)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현대 문체와 일치한다. “하나님의 아들”(God’s son, 요 1 5:5)에서 ‘아들’(son)을 대문자로 표기한다면 중복된 표기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아들”(son)은 분명하게 “하나님”(God)에 의해서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 “...의 하나님 아버지”(God the father of ...) 또는 “그 아버지”(the father)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어 본문에서 나타나는 관사는, 다른 모든 사람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the father)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는(요 6:27) 신적인 프레임을 보여 준다. “너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Where is your father?, 요 8:19)라고 예수의 원수들은 묻는다. 우리는 영어 문체의 현재 기준을 따르기에, 하나의 대문자가 예수의 부성을 결정하는 무게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Father)에 이상한 대문자 “F”를 삽입할 필요가 없

다. 특히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예수를 비판하는 자들도 “우리는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진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요 8:41). 그 절차가 처음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문학적 절제처럼, 즉 좋은 작가라면 아는 것처럼 편집적으로 과장할 필요 없이 진실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기초를 가진다는 것처럼, 그리고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효과적인 기술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영어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대문자 표기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father)를 사용하지만 대문자를 굳이 넣지 않고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 다음 예를 주목하라.

그들이 보기에 그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 (요 5:18)

In their view he not only had violated the Sabbath, but also by speaking of God intimately as his father, he was putting himself on a par with God. (Joh 5:18)

다음 서술에서, “하늘의(heavenly)”라는 형용사는, 어떤 아버지를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네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눅 11:13)

Therefore, if you – although unregenerate –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Luk 11:13)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을 가리킬 때는 단순하게 소문자를 사용한다. “하나님의”(of God)라는 전치사적 구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이라는 완전한 구문에서의 “영”(the spirit)이 하나님의 영(God’s spirit)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한다. 하나님의 영(God’s spirit)에서 만일 대문자 “S”를 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of God)라는 내적인 구문에서 강조를 제거해야 하는 이상한 반복을 만들게 될 것이다. 같은 원리가 “예수의 영”(the spirit of Jesus, 행 16:7)에도 적용된다. 대문자를 절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본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의 근본적인 말씀과 완벽히 일치한다:

참된 예배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미래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요 4:23-24)

But the future has arrived in which true devotees will adore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desires that kind of approach by those worshiping him. God is spirit. Worshipers should revere him in spirit and truth. (Joh 4:23-24)

대문자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체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야고보서 4:5,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the spirit dwelling in us)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어진 구절의 해석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처럼 신약성경 전체에서 소문자 “영”(spirit)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번역자는, 여기서 야고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람의 영을 말한다는 것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다. 그 번역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영어 독자나 해석자 또는 주석가들이 게을러지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누군가 성서 전체의 맥락에서 야고보서 4:5를 다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본문을 읽는 사람이 마치 아주 날카로운 칼로 번역자의 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1:7에서 “영”(Spirit)으로 일관되게 대문자로 번역하다가 두 번째에서 소문자 “영”(spirit)을 언급하는 경우, 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45에서 단 한 번 소문자 “영”(spirit)을 한 번 언급할 때에는 같은 애매모호함이 존재하기도 한다.

신약성서의 맥락 내에서는 영(그리스어, *to pneûma*; 영어, “**the spirit**”)에 대한 언급들은, 소문자는 항상 적합하며, 대문자는 과장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다.

(1) 영에 대한 언급들은 실수 없이 (보다 큰 맥락에서) 하나님을 언급한다. (예, 딤후전 4:1)

(2) 영에 대한 언급들은, “하나님의”(of God)가 각각의 경우에 암시된다고 전제하여, 생략되어 있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문맥으로부터, 어떤 다른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사와 함께 소개되는 짧은 형태 “the spirit”은 그 의미를 충분히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6(*en pneúmati hagío*)에서 “성령 안에서”(in holy spirit)처럼, “성스러운”(holy)이라는 단어는 “영”(spirit)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 **관사가 없다**. 그리고 전치사가 앞에 오는 다른 경우(성령을 통해서[*dià pneúmatos hagíou*] - 행 1:2)에, “성령”(holy spirit)이 충만하거나 충만해진 것에 대해서 또는 “성령”에 잠기거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등을 이야기 할 때의 모든 구절 (마 3:11, 막 1:8, 눅 1:15, 41, 67; 3:16; 4:1; 요 1:33; 행 1:5; 2:4; 4:8, 31; 6:3, 5; 7:55; 9:17; 11:16, 24; 13:9, 52; 엡 5:18)에서, 그리고 사도 행전 10:47(*tò pneúma tò hágion*)에서 “그 성령”(the holy spirit)처럼 **관사가 있을 때**, “영”(spirit)을 꾸며 주는 형용사로서 “성스러운(holy)”을 사용하는 모든 표현들은, 형용사나 명사를 애매하게 대문자화하지 않고 “성령”([the] *holy spirit*)을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의 동의어로 이해하면서 번역 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익숙하지만, 4세기와 5세기의 철학-신학자의 도그마적 성장에 맞추기 위해서 편향적으로 대문자화했던 성령(Holy Spirit)이라는 용어는, 마치 대문자화가 각 개인을 가리킬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과 대문자로 시작하는 성을 만든 것처럼(홀리 스파이어스[Holly Spires] 또는 호바르트 스펜서[Hobart Spencer]처럼), 근거가 없고 성서적 전례가 없기에 사용을 피해 왔다. 그 예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the disciples kept being filled with joy and holy spirit, 행 13:52)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비슷하게 “은혜의 영”(the spirit of grace, 히 10:29)에서 첫 번째 명사에 대문자를 쓰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적절한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다스려지는 영을 주셨다 (딤후 1:7)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that is faint-hearted, but dynamic, loving, and controlled by wisdom (2Ti 1:7)

비슷한 원칙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영광’, 그리고 ‘손’(God’s *word, glory, and hand*) 등을 언급할 때 나타난다. 구전 메시지, 문서 메시지, 영원한 말씀, 심겨진 씨, 또는 계시의 그리스도 등 어느 것을 가리키든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이 나올 때마다, 소문자로 또는 (소유격으로) 하나님 다음에 **말씀**(God’s word)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손”(the hand of God)도 비슷하다.

소문자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적 관습을 따르면서,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하여 만든 사람인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하나님”(god)(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 유다, 다윗)과 같은 고유 명사들에 대해서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²⁾

3.3. 신성한 고유 명사 연구 — 계시된 하나님의 인격적 이름의 포용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즉 (한글 발음상 야훼인) **Yahveh**는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번역에서 잘 드러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삭제된 채, 그분만이 진정한 유일신이라는 사실은 성서에 계시된 배타적 ‘인격적’ 이름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하지만 ‘관용적 번역’은, 구약과 적절한 연속성을 가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회복하여 드러내었다(출 33:19). 따라서 일반적 용어(하나님)와 그를 부르는 다른 명칭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유일한’ 인격적 이름을 나타낼 경우에는 그의 계시된 ‘이름’이 당연히 절제되어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번역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면서, 주(Lord)로 대체하였는데, 마치 찰스왕이 그 시대에 자기의 이름 대신에 ‘전하’(Your Highness) 또는 ‘폐하’(His Majesty)라고 불렀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환칭하여 지어 불렀다. 신약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하나님(엘로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이 히브리어 본문인 구약성경에서 인용된 것임이 분명히 발견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22개의 숫자 중에서 ‘j’ 또는 ‘w’가 없는) 정확한 히브리어 글자 쓰기를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되는 음역인 Yahveh [히브리어 יהוה인데, 변형된 형태인 יהו와 대조되는 것처럼]를 사용해 왔다. 그 예로는 누가복음 20:42와 히브리서 1:10의 철자를 들 수 있다.³⁾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용어는 ‘엘로힘(Elohim)’이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은 ‘야훼(Yahveh)’로 알려졌다. 미가 예언자는 이러한 구분을 분명히 했는데, 일반적인 용어(“엘로힘[Elohim]”: 신들[gods], 하나님[God])과 하나님의 유일한 인격적인 이름(야훼[Yahveh])을 모두 사용하였다:

2) David Crystal,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48에 있는 눅 2:1-14 인용을 보라.

3) Peter Limburg, *Stories Behind Words: The Origins and Histories Behind 285 English Words* (Bronx: H. W. Wilson, 1986), 104.

모든 민족이 자신의 신들[‘엘로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엘로힘]’ 야훼[‘야훼’]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 4:5)

All the nations may walk in the name of their gods [*Elohim*]; we will walk in the name of **Yahveh** [*Yahveh*] our *God* [*Elohim*] for ever and ever. (Mic 4:5)

성경 본문에서 ‘이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유일한 이름의 철자를 생략하지 않고 쓸 때조차도, 어떤 점에서 ‘알리아(alilah)’[‘그 하나님’(the god)]의 축약형인 ‘알라(Allah)’를 앞뒤가 맞지 않게 이슬람식으로 사용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의 진짜 이름을 생략하는 영어 성경 번역에 국한된 그리스도인들의 연구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적 이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게 된다. 성경에서 신적 이름 יהוה가 6,007번 나오는데, 거룩한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전통적인 번역자들은, 이것을 ‘주’(the Lord)라고 표현해왔다. 환칭(antonomasia)을 하기 위해서 이 외래 용어가(‘어떤 문자적 근거 없이’) 정관사[the]에 의해서 강조되고(‘어떤 문자적 근거 없이’) 대문자에 의해서 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the Lord)라고 고안하여 재구성한 것은 하나의 명칭을 치환하는 것인데, 성서 본문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고유 명사**를 대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히브리어 יהוה를 영어에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음역을 하게 되면) **Yahveh** 또는 프랑스어로 **Yahvé** (<예루살렘성경> 프랑스어역)이다. 유대에서 글로 쓰는 것에 대한(필사적[scribal]) 미신 또는 그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번역을 할 때, 그의 ‘이름’을 임의적 ‘명칭’으로 격하, 즉 **야훼(Yahveh)**를 주(the Lord)로 표기하게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미신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시 139:20), 유대 사람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아도나이[‘나의 주’]로 대체되고, 타당한 모음을 가진 יהוה를 대신해서, 급진주의자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יהוה로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원래 모음과는 다른 모음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칠십인역으로 소극적으로 대체한 것에 근거하여서는, **야훼(Yahveh)** 대신에 그리스어로 주를 의미하는 κύριος라는 단어가 수천 번에 걸쳐서 사용되었다. 그의 말씀으로 인해 만물 위에 찬양받는다(시 138:2)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삭제하고 심지어 어원적으로도 전혀 연관이 없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재의 찌꺼기를 본문에 남겨놓는 것과 같이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어권의 신자들이 로마서 8:15에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특권이 라는 것을 읽게 되기 전까지, 이슬람의 알라처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구분된 인격적인 이름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하도록 한다.

하나님과 동일시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요1 1:3)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때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인용할 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성스럽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한에서 신성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엘로힘(Elohim)’, 즉 진정하게 하나님이라고 사용된 것은 구약성서에서 2,000번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우상’과 ‘사사’, 그리고 이름이 있는 가짜 신들, 즉 ‘아몬’, ‘바알’, ‘그모스’, 그리고 ‘다곤’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사용된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은 6,000번 넘게 나타나는데, 항상 **단수**이고, 항상 **무관사**이고, 항상 하나의 **고유 명사**로 나타난다. 그리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명명하고, 또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짐으로써 부여되는 인정된 가치를 주장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인 야훼는, 구약성서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용어로서 세 번 나타난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거룩한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거룩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의 삶을 요약하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두 번 언급하였다. “**당신의 이름 - 당신이 나에게 준 이름**”(your name - the name you gave me, 요 17:11, 12).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권 독자들은, 그들이 구약성경을 읽을 때, **the Lord** 와 **the Lord**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없거나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수의 원수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예수의 메시아적 구절들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The Lord** says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NIV, 시편 110:1) 편집적인 수정 때문에 모호해진 영어적 표현을 히브리어의 명료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절은 대신에 이렇게 읽혀야 한다. “야훼는 나의 주에게 말씀하였다”(Yahveh says to my **Lord**, 눅 20:42). 이에 더해, 모세가 모든 다른 신들보다 야훼가 우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원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가 많은 맥락에서도) 명칭으로 인해서 모호해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너희의 **하나님**[엘로힘] **야훼**는 **신**[엘로힘] 가운데 **신**[엘로힘]이시며
주[아도님] 가운데 주[아도네]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엘]이
시라 그리고 그는 차별이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신 10:17)

For **Yahveh** your **God** [Elohim] is **God** [Elohim] of **gods** [Elohim] and
Lord[Adone] of lords [adonim], the great God [El], mighty and
awe-inspiring, who does not show favoritism and does not accept a bribe.
(Deu 10:17 – WGM’s translation).

하나님이 모든 다른 이름이 주어진 신들이나 우상들과 대조적으로 다른 어떤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최상의 지위와 유일한 인격적인 본성이 확인될 때에 번역자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생략하고 환치한다는 것은, 최소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책임하게 호도하는 것이다. 번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히브리어 본문이 무시되고 억제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모호함에 다시 한번 주목하자. 실제로 독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접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창조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모스는 “주가 그의 이름이다”(The Lord is his name, NIV, 암 5:8)라고 외친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면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야 했다. 그는 이름을 애매하게 부르는 것 없이 “야훼가 그의 이름이다”(Yahveh is his name)라고 했어야 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기 확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또는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I am Yahveh; that is my name! I will not give my glory to another or my praise to idols, 사 42:8)

바알은 ‘주’라는 뜻이다. 구약 시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지 ‘주’(the Lord)라고 말했다면, 그 명칭은 표현에 있어서는 가나안에서 쓰는 용어인 바알(the Baal, ^{בַּעַל} - 관사 + 명사 = ‘주’[the Lord, 왕상 22:53[54])과 동등한 것이다. 만약에 NIV의 열왕기하 10:23 영문본을 히브리어(각 경우에 바알 대신에 “주”[the Lord]로 문자적으로 대체하여)로 역번역을 한다면, 예후의 명령(the command of Jehu)은 원래 청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NIV에서는 어디에서라도 야훼의 이름을 제외시켜서, 바알을 염두에 둘 경우에 문자적으로 애매해지게 된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즉, ‘주’]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즉, ‘주’]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즉, ‘주’]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주[즉, 야훼]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Then Jehu and Jehonadab son of Recab went into the temple of Baal [i.e., “the Lord”]. Jehu said to the ministers of Baal [i.e., “the Lord”], “Look around and see that no servants of **the Lord** [i.e., Yahveh] are here with you – only ministers of Baal [i.e., “the Lord”].”

3.4. 인용 부호

‘법’(고전 9:21)과 ‘세레받은 자’(고전 10:2)와 같은 단어들은, 분명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특별히 적용되어, 현대의 용법에서처럼 인용 부호로 표시된다. 또한 성경 이외의 자료들(예를 들어, 그리스어 시, 세속적인 속담, 고린도 회중에서 진행되는 대화)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구약성서의 인용은 인용 부호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구분되는 길상스체[Gill Sans]로 표기되었다. 더 길게 인용되는 것은 넓은 모서리의 들여쓰기 형식(indented block format)으로 시작하고 인용 부호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5. 시대착오적 번역의 방지

일반적으로, 제대로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시대착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관용적 번역은 모든 본문에서 배경을 형성하는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사실이어야 한다. 누가복음 8:17을 번역할 때 ‘신문 기사’(newspaper headlines)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숨은 것이 장차 신문 기사화되지 않을 것이 없다”(and nothing covered up that will not make the headlines).

관용적 번역의 테두리 안에서, 만약 해가 없고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립적이라면,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오늘날 영어 단어 ‘도시’(city)는 많은 사람을 전제한다. 만약에 성서 시대에 훨씬 더 적은 인구들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의 도시 개념을 적용하면,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몇몇 “도시들”(행 14:6)은 없고, 많은 마을들/동네들(행 8:40)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관용적 번역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적 시대착오적 표현은 요한복음 4:52의 오후 1시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오후 1시는 로마 시대의 시간인 제7시, 즉 현대 문화에서 아침 7시 또는 저녁 7시로 오해될 수 있는데, 각 경우보다 6시간 일

찍이거나 늦은 것이다. 요한복음 10:20에서 “정신질환적인”(psychotic)이라고 사용한 용어는, 용어로서 덜 관습적이기는 하지만 그리스어 단어의 현재적 의미를 잘 전달한 유용한 관용적 표현이다.

3.6. 조심스럽게 그리고 드물게 음역하기

이름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를 음역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음역이 영문에서 인정된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단어에서는 음역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 대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홍수 Cataclysm < *kataklysmòs* (눅 17:27하); 종양 gangrene < *gángraina* (딤후 2:17); 무저갱 abyss < *ábyssos* 롬 10:7); 입교 proselyte < *prosélytos* (행 6:5); 언쟁 logomachy < *logomachía* 딤후전 6:4); 이질 dysentery < *dysentérion* (행 28:8). 분명한 시대착오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2:10에서 *automátē*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전기적인 장치를 의미하는 단어인 ‘자동적으로’(automatically)라고 음역되기보다는, “저절로”(of its own accord)로 번역되었다. 또한 누가복음 1:52에 나오는 마리아의 예언자적 노래에서 그리스어 *dynástas*는 왕조들(dynasties)이 아니라, 군주들(monarchs)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예수가 그의 첫 번째 제자 중의 한 명인 시몬에게 그가 알려질 긍정적인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영어로 Peter라고 우회적으로 음역하기보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어로 된 명칭을 바위(Rock)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인격적 이름이 6,007번 사용되었는데, 신약성서에서는 구약성서의 고유한 음역인 야훼(Yahveh)를 유지하면서 97번 사용된다.

3.7. 문단 나누기

문단의 구성은 무엇이 일관된 사고의 단편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를 통해 결정된다. 사고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로서 절보다는 나누어진 문단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은 본문의 각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맥락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본 번역의 문단 나누기는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바바라 알란트[Barbara Aland]와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 카라비도풀로스[Johannes Karavidopoulos], 마르티니[Carlo M. Martinini], 메쯔거[Bruce M. Metzger]에 의해 편집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네 번째 판본의 문단들과 일치한다.

3.8. 이탤릭체, 굵은 글씨, 그리고 방점

워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자 형태에서 유행하는 것과 일관되게, 본 번역은 방해되는 것이 없는 한 본문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점에서 (제한적으로) 이탤릭체, 굵은 글씨, 그리고 방점 등을 사용한다. 영감을 받아 쓰여진 본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요 단어, 구, 혹은 절을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사 이탤릭체와 굵은 글씨와 방점은 사용할지라도 자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9. 생략

마지막 구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동사를, 수구(首句) 반복(anaphora)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다음 문장은 보다 강렬하게 끝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disintegrate), 나의 말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막 13:31)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부정어 다음에 나오는 ‘없어진다’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동사의 두 번째 기록을 생략함으로써, 반복을 피하고 끝이 무거운 문장에서 부정문으로 끝나는 영어의 방식 때문에 전체 문장이 독자의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다. 다른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17:22에서 발견된다.

그리스어 본문에서 생략이 발견되는 다른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각 경우에 영어 번역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을 채워 넣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예는 요한복음 7:39에 나타난다 – *oúpō gàr ên pneûma* (왜냐하면 아직 영으로는)라는 그리스어 구절은 영어 번역에서 “왜냐하면 그의 영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for his spirit was not yet received)처럼 모호함 없이 표현된다. 마지막 단어는 맥락상 암시를 통해 보충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영을 받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지를 독자들이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만든다. 이처럼 생략을 채운 두 번째 예는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 6:17의 그리스어 본문 *Autòs gàr ho Hērōdēs aposteilas ekrátēsen tòn Iōánnēn* (왜냐하면 헤롯 자신을 보내어 요한을 체포하였다)인데, 영문 번역에서 누구를 보냈는지를 보충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헤롯은 대리인들(deputies)을 보내어 요한을 체포하였다.”

다른 경우, *gàr* (왜냐하면)라는 그리스어 접속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리스어 문장들(갈 5:5, 6)에서 한 번 이상 나온다는 확장된 추론 가운데 이 접속사가 두 번째로 나올 때에는, 번역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어 구문상 그런 반복을 통해서 하는 논의가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두 개의 동등한 문장을 각각 접속사 “For”(왜냐하면)로 시작한다면 영어 번역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아주 잘된 영어 번역에서 종종 생략되는 누가의 서술 문체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자면 에니아의 치료 이야기는 “그것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동사로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다음 사건이 일어났다.”(행 9:32) 그러나 뒤이어지는 이야기, 즉 도르가의 중병과 죽음 후의 그녀의 소생(행 9:37) 이야기에서 동일한 동사가 다시 나올 때에는, 번역상 그 동사를 생략하는 편이 더 낫다. 누가는 때때로 부정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최상의 영어 번역으로는 사도행전 9:33에서처럼 (a, an 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부정 관계 대명사가 없이도 분명하다: “그는 에니아라고 불리는 한 남자를 거기서 만났다.” 누가의 서술 문체 가운데는, 종종 영어 단어로 번역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접사 *de*(예를 들어, 행 9:32, 33, 36, 37, 38, 39, 40, 41, 42, 43)가 많이 나타난다.

3.10. 괄호와 대괄호

괄호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고 생략된 요소를 조심스럽게 삽입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마 7:7). 대괄호는 드물게 사용되는데, 난해한 암시에서처럼 문맥상에서 그 필요가 즉각적이며 유용하지 않을 때(요 1:21), 혹은 대명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설명을 억지로 삽입하기 위해서만 드물게 사용된다.

3.11. 각주 피하기

일단 각주를 통해서 대안과 명료화와 주석하는 코멘트를 소개하기 시작한다면, 거의 끊임없이 각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인 한계점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단지 두 군데(마 28:19, 막 10:51)에서만 별표로 표시된 주석이 있다.

3.12. 장과 절에 숫자 매기기

페이지로 넘어가는 절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관없이, 각 페이지

의 표제들은, 그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장들과 절들을 표시하게 된다. 장들은 굵은 활자체로 나타낸다. 어깨 글자 절의 숫자는, 본문의 흐름 안에서 언급이 시작되는 지점에 삽입된다.

그리스어 본문이 전통적인 절 숫자의 본문을 지지하지 않을 때, 순서를 다시 매기기보다는 전통적인 절 숫자 매기기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에는 절의 숫자가 생략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가복음 11:25 다음에 11:27이 오고, 마가복음 15:27 다음에 15:29이 오는 경우가 있다.

3.13. 번역을 위한 그리스어 기초

본 번역은 신약성서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어 사본 중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잘 인정받는 편찬본에 근거한다.

The Greek New Testament. Fourth revised edition. Edited by Barbara Aland,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and Bruce M. Metzger. D-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ited Bible Societies, 1994.

정확하게 동일한 그리스어 본문은 다음에서도 발견된다:

Novum Testamentum Graece. Twenty-seventh revised edition from the original work of Eberhard and Erwin Nestle. Edited by Barbara and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and Bruce M. Metzg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위의 그리스어 본문이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반면,⁴⁾ 편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어 본문에서 구두법이 항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위의 본문에 주어진 것이 의문문이지만, 로마서 10:19는 직설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 요한복음 7:38은 오리겐(Origen)의 잘못된 구두법에 기인하여 절이 잘못 표시된 전형적인 예로써, 그 결과 맥락과 배리되는 오번역을 초래하게 된다.

4) 하나의 예외가 마 28:19하에서 나타나는데, 그 경우에는 상당히 긴 UBS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판 본문이 각주에 위치하게 된다. 그 두루마리의 노출된 모서리들은 마모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끝에서 등장하는 의문스러운 본문은, 교회의 영감 어린 성서 역사가운데, 심각한 내적인 모순이나 외적인 반대들에 부딪히게 된다(행 2:38; 8:12-16; 10:48; 19:5).

3.14.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은 직설법 이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답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스어와 영어 모두에 있어서 그것이 기대하는 대답의 방향으로 응답자를 유도하게 된다. 구에서 부정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어 질문에서, 그리스어 부정어 *ou*는 답으로 “예”를 기대하고 되고, 반대로 그리스어 부정어 *mē*는 “아니오”를 기대하게 된다. 이 문법적인 정확성이 영어에서 부가 의문문을 통해서 나타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냥에 팔린다. 그렇지 않은가?”(마 10:29) “애들아, 양식이 될 만한 무엇을 좀 잡지 못했느냐, 그랬느냐?”(요 21:5)

3.15. 이름과 위치에 대한 철자 표기

고유 명사의 철자 표기는 바우어 그리스어 사전 제2판(*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1979)의 윌리엄 F. 아른트(William F. Arndt)와 F. W. 갱그리치(F. W. Gingrich)의 철자에 따른다. 통일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현대 영문 철자는 Judea라고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Judaea라고 표기한다. 때때로 “남쪽 지방”(the southern province)을 Judaea로 대체한다.

3.16. 공식적인 문체

고대의 논픽션 작품이라는 형식의 성격에 맞도록 축약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메시지를 뜨겁게 또는 차갑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난스럽게 꾸미려는 유희는 금물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특성은 유지한다.

3.17. 관용적 이명법(Idiomatic Binomials)

영어 관용구에서 이명법 “육과 혈”(고전 15:50; 엡 6:12; 히 2:14)은 관용적이어서 앞뒤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없고, “육과 혈” 순서로 그대로 쓰인다. 그러나 그리스어 본문에서 비슷한 이명법 역시 관용적이어서 앞뒤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없는데, (갈 1:16을 제외하고는) 어순이 반대이다. 관용적이어서 앞뒤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없는 (히브리어) 이명법

의 또 다른 예는 “밤과 낮”(살전 2:9; 3:10; 살후 3:8; 딤펢전 5:5; 딤펢후 1:3)인데, 계속되는 노동과 기도를 묘사할 때 사용된다. 그것의 히브리어 순서는 위의 본문에서도 유지된다. 그리스어 본문은 한 번 “낮과 밤”(계 7:15)으로 표기된다.

3.18. 연속 본문

흔히 본문 전체 가운데 한 단락이 시작하는 절 바로 앞에 부제를 사용하여(예를 들면, 행 20:7-12에서 “유두고가 창밖으로 떨어진 사건”과 같은) 본문의 원활한 흐름을 끊기도 하는데, 영감 받은 본문의 나눌 수 없는 특성과 기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제는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

3.19. 특징적인 명명법

~ 야훼(Yahveh),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 독자들에게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중에게 계시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혹은 <제임스왕역>의 잘못된 혼종적인 표현인 ‘여호와(Jehovah)’ - <제임스왕역>에서는 단지 10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창 22:14; 출 6:3; 17:15; 사 6:24; 시 83:18; 사 12:2; 렘 23:6; 겔 48:35) - 를 계속 사용할 수 없었던 번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생략되었는데,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글자(tetragrammaton)와 함께 적절한 모음을 복원시킴으로써 그것을 교정하였다. 성서 시대나 또는 성서 후 시대에, 사람들이 야훼(Yahveh)라고 말하거나 추상적인 대체인 아도나이(אֲדֹנָי ‘나의 주’[my lords] - 시 2:4)를 사용하는 했지만, 여호와(Jehovah)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Jehovah)는 아도나이의 히브리어 모음과 YHVH (יהוה)의 네 개의 자음을 결합했기 때문이다. 19세기경, 히브리어가 활용되지 않았던 [즉, 사용되지 않았던] 공백기에, 어떤 기독교 학자들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를 통해서 성서의 하나님을 언급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성서적 이름을 야훼(Yahweh)로 대부분 음역하였다. 유성 파열음인 vav를 (즉, v를 w로 -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상한 음소인) waw로 표기하는 것은, 말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모두 힘든 음역을 파생시켰다. 그 결과, 살아있는 히브리어를 오늘날 영어로 음역하는 것과 불협하는 형태를 낳게 되었다. 히브리어를 발음할 때는, (스페인어나 체코어처럼) 히브리어가 거의 표음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다시 19세기로 돌아가면, 구약성서학자인 찰스 A. 브릭스(Charles A. Briggs)는 다음과 같이 예리

하게 언급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번역’도 그 의미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다”(Messianic Prophecy, 1886, Dendrickson reprint, 1988) p. x [따옴표와 굵은 글씨는 추가된 것임].

~ **세례 요한(John the baptizer)**은 위대한 선지자인 그와 사도 요한을 소명으로 구분한다. 대문자로 표기될 경우 요한이 마치 특정한 교파에 소속된다는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명명하지 않는다.

~ **딸 시온(the daughter Zion)** [시온의 딸(daughter of Zion)이라고 표기하면 마치 하나님과 시온에 더하여서 알려지지 않은 제삼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에]은 구약성서를 인용되어 마태복음 21:5와 요한복음 12:15에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시온은 그의 딸이라는 것이다.

~ **믿음이 적은 자(들)(microbeliever[s])**라는 용어는, 예수가 현존하기에 더 많은 믿음을 가졌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설명하는 정확한 용어인 그리스어 *oligópistos* (믿음이 적은 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예, 마 6:30; 8:26; 14:31; 16:8).

~ **올리브산(Olive Grove Mountain)**은 전통적인 영문 표현인 “Mount of Olives”를 대체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올리브 나무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산지보다는 익은 올리브가 대량으로 쌓여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 26:30).

~ **민족(nations)**은 히브리 사람들이 비유대인들을 부르던 말이다(롬 3:29; 11:13; 15:9, 10, 11, 12). 혹은 **이디시어(Yiddish)** 음역을 통해서 영문으로 표기된 것처럼 **이방인(goyim)**(눅 18:32; 롬 1:5; 2:14; 10:19; 11:13; 15:9)이라고 부르거나, **이방인(gentiles)** 즉 같은 [비유대인] 족속(마 10:33; 막 10:33)을 가리키는 단어로 불렀다.

~ “**바위라 불린 시몬(Simon, called Rock)**”(마 10:2). 예수는 원래 이름이 갈대를 의미하던 사도에게 특징짓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아람어 단어들이인 시몬(Simon)과 게바(Cephas, 요 1:42) 사이에서 말장난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어 단어인 *Petros* (바위)를

음역하기보다는 번역하는 것이 항상 최상이다.

~ **학자(들)(Scholar[s])**은, 그리스어 단어들, *grammateús* (단수형), *grammateĩs* (복수형)에 대한 적합한 번역으로서 항상 나타난다. 그러나 어원을 근거로 <제임스왕역>과 그 뒤를 이은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서기관(들)(scribe[s])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막 3:22; 7:5; 9:11, 14; 11:18, 27; 12:35; 14:1, 53).

~ **심히 죄지은(supersinful)**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표현인 *hyperbolēn hamartōlōs* (롬 7:13)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형용사이다.

~ **성인들(the holy ones)**이라는, 자주 나오는 용어는 신성화라는 성서 교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신약성서에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있는 형태로) 총 45번 나타나는데, 그 용어는 그리스어 표현 *hoi hágioi*를 번역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행 9:13, 32; 26:10; 롬 1:7; 8:27; 15:25, 26, 31; 16:2, 15; 고전 6:1, 2; 14:33; 16:15; 고후 1:1; 8:4; 9:1; 13:13; 엡 1:1, 15, 18; 3:18; 6:18; 빌 1:1; 4:21, 22; 골 1:4, 12, 26; 딤후 5:10; 몬 1:5, 7; 유 1:3; 계 5:8; 8:3, 4; 11:18; 13:7, 10; 14:12; 16:6; 17:6; 18:20, 24; 19:8). 성인들(saints)이라는 번역어는, 기도의 종착점과 추정컨대 기적의 원천이 되게 하는 교황의 시성식을 통해서(신약성서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을 잘못 특정화시킴으로써 너무나 오염된 결과, 그동안 사용되어오지 않았다. [TNIV (2002)의 시험판은 *hoi hágioi* (성인들)이라는 용어를 사회학적인 정의 (즉 “믿는 자 [believers]”와 “하나님의 사람들[the people of God]”)로 왜곡시키며, 그 결과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신성한 특성에 대한 진실을 차단하게 되었다. TNIV에서 대체된 그와 같은 용어들은 관용적이라기보다는 함부로 그리고 잘못 번역된 것이다.]

~ **인간(the human one 또는 the human being)**은 셈족 관용구로써, (복음서에는 총 82번 기록되었는데) 49번에 걸쳐서 예수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ho huiòs tou anthrōpou)로 가리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한 방식이다. 이러한 명칭은 전통적으로 ‘**관용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없이**’, 영문으로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제임스왕역>, NIV)로 번역되었다. 영어에서 이상하고 정당화되지 않은 대문자화를 없애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하는 강조점을 사람에게 대한 관용구, 즉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에 놓는 것이다. 하지만 형태가 그렇게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는 영어에서나 다른

비셈족 언어에서 자명하지 않다. 영어는 생물학적 의미에서 부권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름 붙여진 아버지나 어머니의 아들 또는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son of …)’이라는 구절을 사용한다. 그것은 비유적 부성적 의미에서, 사람의 영적이거나 지적인 아들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영문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언어에서 처럼, 예를 들자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Ithamar son of Aaron, 출 38:21)과 같이 자식이라는 확인을 부여받은 아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거나,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Shaul the son of a Canaanite woman, 출 6:15)과 같이 자식이라는 확인을 부여받은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 반면에 히브리어는 부성이나 모성을 특징짓는 것을 뛰어넘어 특별하게 파생된 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누군가의 아들(son of …)’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그것은 ‘아들’을 수식하는 일반 명사에 포함된 본성과 특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서, ‘무가치의 아들’이란 쓸데없는 건달이다(삼상 25:17); ‘힘이 있는 아들’은 용감한 군인이었다(삼상 14:52; 삼하 17:10); ‘죽음의 아들’은 확실히 곧 죽을 자, 즉 죽음으로 인친 자이다(삼상 20:31); ‘기름의 아들’은 올리브기름을 산출하는 작은 숲을 말한다(사 5:1[히브리어 본문]); ‘살인의 아들’은 살인자를 말한다(대하 6:32); ‘새벽의 아들’은 영광스러운 아들을 말한다(사 14:12); ‘한 해의 아들’은 어린 새끼를 말한다(출 12:5); ‘타국의 아들들’은 외국인들을 말한다(사 60:10; 62:8); ‘간음의 아들들’은 혼외 자식들을 말한다(호 2:4);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받은 자들을 말한다(스 4:14); ‘동방의 아들들’은 동쪽의 사람들을 말한다(창 29:1; 사 8:10). ‘누구의 아들(the son of …)’이라는 관용구는 [단수이든 복수이든] 히브리 어법으로서 신약성서에 전수된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의 가르침과 대화는 히브리어 방언, 즉 아람어로 구전되어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관용구는 문자적으로 그리스어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면, ‘평화의 아들’은 평화로운 사람을 말한다(눅 10:6); ‘연기 나는 쓰레기 더미의 아들’은 사악한 품성을 지닌 혐오스러운 사람을 말한다(마 23:15); ‘불순종의 아들들’은 반항아들을 말한다(엡 5:6; 골 3:6); ‘악마의 아들’은 악마적인 사람을 말한다(행 13:10); ‘파괴의 아들’은 파괴적인 사람을 말한다(요 17:12; 살후 2:3); ‘이 시대의 아들들’은 속물들, 즉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한다(눅 16:8; 20:34); ‘왕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마 8:12; 13:38); ‘천둥의 아들들’은 심판의 위협을 불평하는 비난자를 말한다(막 3:17; 눅 9:54);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견지하는 계시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눅 16:8; 요 12:36; 살전 5:5); ‘신랑의 아들들’은 결

혼식 하객들을 말한다(마 9:15; 막 2:19; 눅 5:34). 용례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절이 ‘기본적’인지 즉 부성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관용적’인 것인지 즉 명사로서 사용되는 특징이나 질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인지 결정하라. 만약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고유** 명사이면, ‘누구의 아들’(the son of)이라는 구절은 호명된 사람으로부터 부성(또는 모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일반** 명사라면 ‘누구의 아들’(the son of)이라는 구절은 특정한 명사가 나타내는 속성을 의미하고, 그렇게 특성화된 사람을 유형화한다.

히브리어 구문인 **사람의 아들**(אֱנוֹשׁ בֶּן־אָדָ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뒤따르는 구절에서 ‘아들’[בֶּן־]을 사용함으로써 히브리어로는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문자 그대로 번역된다면, 서양 독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자가 단순한 세 단어를 알고 있기에 종종 스스로 그 구문을 이해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아무리 독자가 단순한 구문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 할지라도, 셈어 관용어는 줄곧 독자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토 중인 주요한 기독교적 관용구인 ‘사람의 아들’(huiòs tou anthrōpou)은 위에서 주어진 많은 예들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 인간의 삶과 자연의 본질, 질, 그리고 속성을 표현하는 것
- 순수한 사람
-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라는 종족, 사람

관사와 결합되어 삼인칭으로 표현된 그리스어 용어인 ‘사람의 아들’(ho huiòs tou anthrōpou)은 예수가 자신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몸”(the human one)으로 가장 자주 번역되었다. 그 결과 참된 기독교의 시금석이자 예수 그 자신이 강조했던, 예수의 인성을 보전하게 된다 (요 1 4:2-3).

3.20.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번역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본 번역은, 모든 성경 본문이 모든 신실한 구도자들과 진실한 신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치 모든 행과 행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것처럼 간절한, 본 번역자의 기도와 뒤섞여 있다.

<주제어>(Keywords)

관용적, 번역, 구약, 신약,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영어.

idiomatic, translation, Old Testament, New Testament, Hebrew, Greek, Aramaic, English.

(투고 일자: 2019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9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9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Crystal, Davi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Limburg, Peter, *Stories Behind Words: The Origins and Histories Behind 285 English Words*, Bronx: H. W. Wilson, 1986.

Grover, R. O., ed., *U.S. News & World Report Stylebook for Writers and Editors*, 7th ed., Washington: U.S. News & World Report, Inc., 1994.